메리츠 금융 Daily

2020. 6. 26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News

미 금융당국, '은행 벤처캐피털 투자확대' 등 볼커룰 규제 완화 — 연합뉴스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에 대한 또 다른 규제 완화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이 계열사 간의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도 삭제... 시장은 이 같은 규정 삭제로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추정

은행, 신용대출 문턱 높인다 — 파이낸셜뉴스

5대은행 신용대출 잔액 한달새 2兆 증가...코로나 및 부동산 규제로 수요 크게 몰리자...한도 축소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우리은행, 7월 중 실시 예정

하지만 은행들의 자금공급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전세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제기될 가능성

탄력받는 동산금융 활성화…5대 시중은행 5개월간 70% '껑충' — 데일리안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월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5,862억원을 기록... 2019년 말(3,448억원)에 비해 70% 늘어난 수준

기존 담보대출에 거절당하거나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동산담보대출로 몰려…다만 일각에서는 "훼손 · 분실 가능성 등 리스크 커 성장 한계"

시중은행, 6월에만 은행채 11건 발행…어디에 쓰나? — CEO스코어데일리

주요 시중은행이 이달에만 무려 11건의 은행채를 발행... 금액으로는 2조3700만 원 가량

관계자, "저금리 기조로 은행채 금리 역시 0%대로 낮아져 시중은행들 자금 조달의 목적 은행채 발행에 적극적...대출 증가로 인한 자금력 부족의 영향 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일 것"

12대 1… 보험 배타적사용권 희비 —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에 5개 보험사가 13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지만 손해보험사가 12건을 획득한 반면 생명보험사는 1건에 불과해 희비가 엇갈려…

삼성생명이 'GI플러스종신보험'의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받은 것이 유일…"생보사의 경우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장, 보장 영역이라고 내세우기 어려운 구조"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 — 연합뉴스

대주주만 대상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채권 · 수익증권 · 파생상품도 과세...손익 합쳐 순수익에만 과세하는 '손익통산' 도입…3년간 손실 이월공제 허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 예정

안전한 채권펀드마저…1.3조 홍콩 젠투펀드 환매연기 확실시 — 매일경제

홍콩계 헤지펀드인 젠투파트너스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국내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가 확실시...26일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로, 키움증권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상품

키움증권이 판매한 젠투파트너스 펀드 규모는 2,625억원…판매분이 26일 모두 만기인지는 미확인...7월 초 만기가 돌아올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비상

현산-채권단 재협상 언제? …물건너간 상반기 아시아나 인수 —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애초 계획한 상반기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어려울 전망...딜 클로징 시점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현산과 아시아나 채권단 간 재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채권단 관계자, "재협상 요구에 현산 측에서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현산, 금호산업 등 협상 주체들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인수 종료 시점은 연장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